

‘정년 60세’ 도입 5년...기업 89% “인력 관리 어려워”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5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 관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3%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높은 인건비(47.8%·복수 응답), 신규 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높은 인건비·신규채용 부담·저성과자 증가 등 예로 “임금체계 개편·직무 전환 활성화 등 유연성 높여야”

대한상의는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노사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가 의무화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대응조치를 취한 기업은 59.0%였다. 가장 많이 취한 조치는 임금피크제 도입(66.1%·복수

답)이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등이 있었다.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을 젊은 직원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고, 젊은 직원보다 낫다는 응답은 25.3%였다.

근속·연령에 따라 중장년 인력의 임금

이 훨씬 높으므로, 중장년 인력은 생산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속 1~3년차 25~29세의 연간 임금은 평균 3,236만원 ▲3~5년차 30~34세는 4,006만원 ▲25년 이상 근속 55~59세는 8,01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게 높은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라며 “임금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나이가 저출산 고령화가 악화되더라도 고용연장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71.7%가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28.3%도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을 도입하되 그 방식은 기업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존 인력 유지에 악영향을 받고(32.3%),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든 것(17.0%) 등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기업의 43.7%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은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이 95.4%로 대다수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하면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전환 활성화 등으로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이는 고용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주택연금 활성화 손 잡았다

광주은행-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와 주택연금 활성화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며,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광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니어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와 주택연금 활성화 공동사업을 추진

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은행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전담창구와 상담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택연금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해 공동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역내 고령층·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민과 동행하며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의 경영이념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광주은행 본점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제공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토스랩이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광주무역회관에 수출기업 지원 ‘연구실’ 개소

무협-토스랩, MOU... 고용창출·솔루션 보급 등 지원

무역협회가 수출 성장을 도운 스타트업 기업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혁신 확산으로 선순환한 사례가 나왔다.

글로벌 비즈니스 협업플 스타트업인 토스랩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7일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한 광주무역회관에 개발연구실을 개소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대만, 일본 등 70여개국의 30만 개 팀이 선택한 업무용 협업플 ‘진디’를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랩은 지난 9월 27

일의 누적투자를 달성한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다.

토스랩은 작년 7월 무역업계의 생산성 제고와 디지털 혁신 확산을 위한 ‘KITA X 스타트업 오픈노베이션 데모데이’에서 Top3 수상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토스랩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혁신 솔루션 보급, 회원사 대상 혜택 제공, 향후 공동 비즈니스 혁신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과 같

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지역 내 고용 창출과 혁신 보급을 위해 광주무역회관 입주 혜택 등 지원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김대현 토스랩 대표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와 비대면 근무 확산으로 확산되고 있는 업무용 협업플의 보급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세미나 기회 등을 통해 무역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진형석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광주무역회관을 거점으로 수출 스타트업이 지역 내 혁신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사례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소부장 기술어로 지원 중기중앙회, 수요조사 박람회 현장상담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 기술어로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에서 대학기술 전략자문단과 직접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은 국내외 뿌리산업과 소재부품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로 내년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개최된다. /오지현 기자

로또 6/45(982회)

당첨번호	5, 7, 13, 20, 21, 44 보너스 33
등위	당첨금액
1등	3,023,630,672원
2등	49,771,699원
3등	1,375,472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연금복권720+(73회)

등위	당첨번호
1등	1조 501026
2등	각조 501026
3등	각조 01026
4등	각조 1026
5등	각조 026
6등	각조 26
7등	각조 6
보너스	각조 222247

종합철거 전문업체 **삼도산업개발**

원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믿음을 드리는 기업

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석면 해체 제거업

안전시설물설치 해체 공사

시설 관리

쇼핑센터 빌딩

아파트경비관리

입주 청소

외벽 청소

소독

확삭작업

삼도산업개발(주) 삼도환경개발(주)
TEL. 062-944-9388, 944-9386